

오스트리아 문화 한자리에 모은 도서축제

문학회, 연극회 등 다채로운 행사 선보일 예정



오스트리아를 주재국으로 기획한 행사 중 문학학교 강사로 활동할 에른스트 안들(왼쪽)과 H.C.아르트만. 유대인 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전시될 헤르만 레오폴드.

오는 10월에 개최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주재국으로 하는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기획, 선보일 예정이다.

‘아스팔트 대신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빈(Wien)’이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19세기의 극작가 그릴파르처에서부터 실험 문학의 길을 열었던 빈 그룹(Wiener Gruppe)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 문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의 문학적 역량을 재조명하고 오스트리아가 현대문화 전반에 기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번 주재국 행사는 도

서전 기간을 포함하여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계속된다. 문학과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품전시회와 심포지움, 문학회, 강연회, 연극 공연, 음악회 등이 도서전시장과 프랑크푸르트 도시 안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회화의 역사와 작품 선보이는 전시회

오펜바흐의 클링스포르 박물관에서는 회화의 역사와 뿌리를 함께 하는 오스트리아 그림책의 변천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1900년경 한 세기가 바뀌는 시대에 활동했던 콜로 모저, 베르톨트 뢰플러, 요제프 우르반 등의 작품이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현대작

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루드비히 아테르세에서 리스베트 츠베르거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를 이어나간 40여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오스트리아 그림책의 발전되어 온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대인 박물관에서는 《헤어질 때는 세르부스(안녕)라고 말하라》의 헤르만 레오폴드와 같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대계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들은 대부분 20세기 초 동유럽에서부터 빈으로 이주해 온 이래로, 자신의 삶을 빈과 함께 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가 되었다. 오페라와 오페레타, 희곡과

영화, 문학 등의 분야로 나뉘어 전시되는 다방면의 작품들 속에서 빈과 결부된 작가들의 삶이 빛어낸 빈의 정취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의 쉬른미술관은 빈 시립역사박물관과 오스트리아의 벨베데레 화랑의 협조를 얻어 ‘현대를 향한 출발, 빈과 유럽’이라는 제목으로, 1900년대로 넘어가는 세기전환 시대의 예술을 포괄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약 25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같은 전시장 안에 아방가르드 계열의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을 선별해 함께 전시함으로써, 빈(Wien) 예술만의 고유한 특질과 유럽 전체를 일괄하는 예술 본연의 조화로운 특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오스트리아 문학 재조명하는 각종 강연회

현대문화 속에서 오스트리아를 재조명하는 작업은 심포지움과 강연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국제 심포지움 <문화로서의 학문, 현대에 기여한 오스트리아>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들이 현대인의 정신적 삶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는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어권 작가인 에른스트 안들이 <오스트리아가 현대 세계문학에 끼친 기여>(1974)라는 수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대문학의 ‘구체와 실험’적인 추세의 효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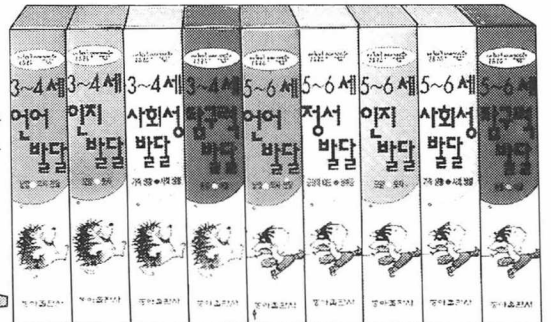


영역별 연령별

유아교육동화 **아카데미** **김흥림**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낱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되었던 오스트리아문학의 재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도서전 기간에 맞추어 해마다 열리는 <95년 10월 문학회>에서는 빈에 위치한 문학학교를 프랑크푸르트에 초대하여 문학수업을 개최한다. 빈 그룹의 주창자격인 H.C. 아르트만, 독일 실험문학의 대표작가인 에른스트 얀들, 볼프강 바우어, 게르하르트 뎀 등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강사로 나와 수업을 진행한다. 약 2주간 계속되는 문학회의 저녁 행사에는 낮에는 강사였던 작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도 갖는다.

주제국 행사의 일환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재조명하는 작업이다. 주로 독일문학의 범주 안에서만 거론되어 오던 오스트리아의 문학을 새롭게 인식시킬 기회인 셈이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는 모든 오스트리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또한,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희곡 <영웅의 자리 Heldenplatz>의 초연과 더불어,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던 저서와 편지·사진 등의 기록물들도 일반에게 공개된다. 독일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인 ORF에서는 베른하르트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독했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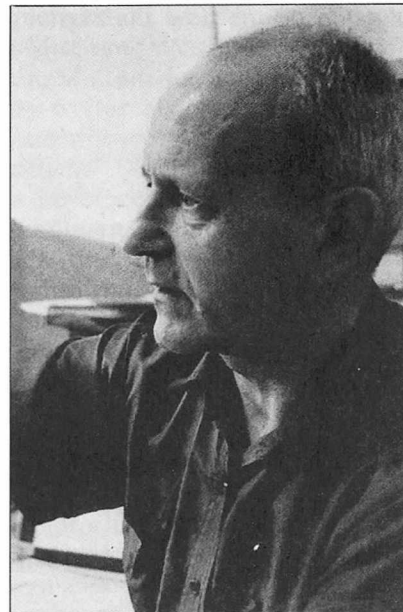
그밖에도, 20세기 독일문화에 결정적인 특징을 부여한 로베르트 무질의 풍부한 문학적 성과, 전 유럽적인 작가로 일컬어지는 호프먼슈탈의 심미적이고 심리적인 문학세계가 강연회를 통해 토론된다. 또한, 단편의 대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젊은 시절의 사진과 작가의 생애를 담은 작품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특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오스트리아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디지털 영상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행사장 벽면에서 색다르게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넷 속의 '영혼'

독일의 한 학술출판사가 인터넷에 정보 서비스를 개설, 전세계에 출판물 목록을 전하고 있어 바야흐로 출판정보의 지구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뮌헨에 위치한 이우디치움출판사는 학술서를 위주로 출간하는 소규모 출판사이다. 특히 인문과학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문헌류와 함께, 외국인이 독일어를 습득하기 위한 어학교재에 중점을 두어왔다. 12년 동안 발행해온 월간지 <파흐딘스트 게르마니스트>(독일문학)을 통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독문학과 독일어 담당 교사들에게 독일의 문화와 경제 소식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인터넷에 출판정보 서비스를 개설한 이우디치움출판사의 페터 카피차 박사.

정확하게 얻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우디치움출판사의 페터 카피차 박사는 외국에 주재한 독일 학술 교류처(DAAD)에서 근무했을 때 자신이 직접 겪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일년여에 걸친 준비작업 끝에 이우디치움출판사는 '가이스트(GEIST)'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지난 3월부터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이스트는 원래 '독일의 백과사전식 인터넷 서비스 터미널'의 약자이지만, 독일어로 '영혼(또는 정신)'을 뜻한다. 국내외에 지사를 따로 두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출판사에게 인터넷은 이상적인 정보전달매체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 목록을 전세계에 전달함으로써 많은 자료의 신선한 공급을 꾀할 수 있지만, 특히 인쇄비와 우편요금의 절감은 가이스트 개설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우디치움출판사 측은 인터넷

트의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가능한 많은 출판사들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주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을 출간하는 톰바흐, 울리우스그로스, 피리히, 페터 랑, 막스 니마이어, 자우어랜더, 인테그랄, 카를 에른스트 피셀 등 15개가 넘는 출판사가 현재 가이스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출판사들은 4색으로 인쇄된 카탈로그와 함께 독자적으로 출판물 목록을 제작하여 소개할 수 있으며, 광고와 소식지, 원본 샘플 등을 가이스트에 비치해 둘 수 있다. 가입 출판사는 일년에 1,500마르크로 200개의 타이틀을 소개할 수 있으며, 700개의 타이틀을 소개하는 데에는 3,875마르크를 지불한다. 출판사가 아닌 학술기관이나 문화단체에도 가이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의 일년 회비는 365마르크라는 상징적인 액수이다.

그러나 가이스트에 가입하기에는 아직 회의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은 인터넷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우디치움출판사의 페터 카피차 박사는 가이스트가 활용될 경우 전세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조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의견이다. <문성원>

철학개론

철학과의 만남

B.A. 브로디 지음/이병욱 옮김/5,500원

철학의 문제들

B. 러셀 지음/박영태 옮김/3,500원

서양의 지혜

B. 러셀 지음/이명숙, 박강재 옮김/13,000원

철학의 뒤편길

W. 바이세델 지음/이기상, 이말숙 옮김/8,500원

철학에의 초대

오너, 힌트 지음/곽신환, 윤찬원 옮김/6,000원

미네르바의 울썩미: 철학이란 무엇인가?

본템포, 오넬 역음/윤용택 옮김/7,000원

소설 소크라테스

C. 메이슨 지음/최명관 옮김/4,000원

철학과 인생의 의미

K. 브리턴 지음/최명관 옮김/6,000원

동양철학

노자 도덕경

노자 지음/조현숙 옮김/6,000원

감산의 莊子 풀이

감산 지음/오진탁 옮김/5,500원

주역의 이해: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곽신환 지음/6,500원

중국철학의 정신[新原道]

馮友蘭 지음/곽신환 옮김/6,000원

유교와 기독교: 동서 문화의 비교 연구

줄리아 칭 지음/임찬순, 최효선 옮김/6,500원

중국의 철학적 기초

F.W. 모트 지음/김용현 옮김/4,500원

법구경

조현숙 옮김/6,000원

한국의 유학 사상

황의동 지음/11,000원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